



KOBA 2017

제27회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 개최

27th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미디어와 방송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KOBAS 2017 전시회가 5월 16일(화)부터 19일(금)까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한국이엔엑스의 주최로 4일간 삼성동 COEX 전시장 및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됐다. “To UHD and Beyond (UHD 그리고 그 너머로)”이라는 주제로 열린 KOBAS 2017인 만큼 전시장과 컨퍼런스에서는 4K/UHD 관련 장비 전시와 기술 소개가 열기를 띠었다. 이번 KOBAS는 코엑스 A, C, D홀 (27,997m²)에서 총 29개국 1,014개사가 참가하고 40,191명의 참관객이 방문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KOBAS 2017 참관객 현황

5월 16일(화)	8,416명
5월 17일(수)	10,401명
5월 18일(목)	11,686명
5월 19일(금)	9,688명

총 40,191명
(KOBAS 2016 - 41,053명)



개막식 및 오찬

KOBA 2017은 5월 16일 유승희 국회의원, 고삼석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최재유 미래부 차관 등을 비롯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시 개막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참석한贵宾들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최신 장비의 흐름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직접 체험을 해보기도 했다. 12시에 진행되었던 오찬 행사에서는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대한 걱정과 우려 속에 협력과 비전을 다짐하며 KOBA의 축하를 되새겼다.



4K/UHD 이슈로 가득했던 전시장

전시장 이슈로는 단연 4K/UHD 관련 장비와 솔루션이었다. 5월 31일 시작하는 지상파 UHD 본방송 일정에 맞추어 진행 현황과 함께 개발된 국내의 장비들이 선보였고, UHD를 UHD답게 만드는 여러 기능에 대해서도 많은 발전 상황이 전시되었다. 특히 HDR 관련 이슈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방송용 카메라, 모니터, 인코더, 컨버터 등 HDR을 채용한 장비들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밖에 IP 및 12G-SDI를 통한 전송관련 장비와 케이블 등도 전시되었고, 당분간은 12G-SDI 기반의 방송시스템으로 방향이 정해진 듯 보였다. ATSC 3.0 표준이 국내 방식으로 선정됨에 있어 국내방송장비업체들은 발 빠르게 이를 적용한 제품을 선보였으며, 이 밖에 파나소닉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부스를 선보였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KOBA TV 부스를 신설해 국산방송장비를 통해 라이브 방송과 전시장 주요 업체의 인터뷰를 통한 소식 전달을 진행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첫 시도라 구성과 진행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KOBA의 주요 이슈와 특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되어 보인다. 내년에는 다양한 전시 부스를 취재하여 KOBA에 참석하지 못한 방송인들도 충분히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전시장 곳곳에서는 참관객들이 참여하는 이벤트와 공연, 강의 등으로 다양한 모습을 연출했다.

동향과 이슈에 대한 공유의 장인 부대행사와 데일리 뉴스

KOBA의 부대행사인 월드미디어포럼은 첫날 무료로 개최되어, NAB와 AWS, VR에 관한 주제를 통해 방송 및 미디어의 가치와 영향력



의 변화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VR에 대한 관심이 약간은 정지된 듯 느껴지지만 그 가능성과 파급력은 여전한함을 느낄 수 있었다. 국제방송기술컨퍼런스는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진행되었고, 4K/UHD와 제작 과정에 대한 이론과 경험 등이 공유되었으며 국산방송장비와 UHD 활성화에 대한 두 번의 토론회를 통해 국내 방송 산업이 넘어야 할 방향과 목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된 것 같다. 그밖에도 컨퍼런스에서는 음향, 조명, 비즈니스,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 이슈로 인해 인공지능 관련 참가객의 관심이 높아 보였다.

기술세미나 및 시연회에서는 ARRI, Allen & Heath, SGO 등의 제품 및 솔루션에 대한 최신 정보가 소개되었고, 한국방송조명연합회에서도 공연 기획과 조명연출에 관한 주제를 진행했다. KOBA 기간 무료로 배포되는 Daily NEWS 역시 디자인과 내용 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KOBA와 미디어 동향 소식을 전달했다.

KOBA 2018에 바란다

이번 KOBA에서는 예년과는 달랐던 점이 일정과 규모에서 느껴졌는데, 올해 NAB 2017이 4월 말에 진행되어 KOBA와는 2주간의 간격 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아 준비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의견과 NAB에서 선보인 신제품도 KOBA에서 많이 선보이지는 못했던 것 같다. 또한, 5월 9일의 대선과 5월 첫 주 일본의 골든위크 등 여러 일이 겹쳐졌고, MBC와 SBS의 미참석 역시 KOBA의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 비록 올해 KOBA의 규모가 약간은 축소되었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UHD 시장의 확대와 평창올림픽 개최, 클라우드와 전자회사의 참여 등으로 내년에는 더욱 성장한 KOBA 2018이 되길 기대해 본다. ☞